

# ‘화장수요 증가’ 신속 대처, 화장로 1기 증설키로

고령화 대비 화장문화 선도 기대  
내년 1월 6기서 7기로 확대 운영  
신안 등 서남권 지역민 편의향상  
“유족 불편 줄여...통합 논의 기대”

목포시가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승화원)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 11월부터 화장로 1기 증설한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화장로 추가 설치 는 고령화 지수가 전국 최고인 서남권 지역의 화장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추가증설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목포시가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승화원)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 11월부터 화장로 1기 증설에 들어간다. 목포시 제공

7기가 운영돼 현재 일 14건(연간 5000여건)에서 일 18건(연간 6500여건)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증가되는 화장 수요에 다소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증설로 연간 최대 1500여건의 추가 화장이 가능해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부터 시민의 불편함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 중인 화장장은 지난 2015년 12월에 개장해 목포시 등 전남 서남권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시설로서 화장수요의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 화장장은 화장로 추가설치 공간이 확보된 상태로 공사기간에도 화장로 6기를 중단없이 계속 운영 한다.

이번에 추가로 증설되는 화장로는 신안군과의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목포시

민과 신안군민은 오전에 화장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우선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화장로 증설은 미래의 화장수요증가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유족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안군 주민들이 화장로를 우선 예약할수 있도록 목포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목포신안 통합 논의 또한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화장장 기능보강 사업등을 통해 최상의 시설 상태를 유지,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어게인 2024 목포’ 개최

목포시립무용단이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제44회 정기공연 ‘Again 2024 목포(어게인 2024 목포)’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목포의 눈물’로 대표되는 슬프고 한 맺힌 목포의 이미지를 무용을 통해 탈바꿈시키는 이미지 전환프로젝트 공연으로 기획됐다.

무용단은 목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멋진 춤사위와 화려한 창작무를 선보이면서 2024년 한 해를 걸어온 시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희망찬 내일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는 노래와 춤, 운동 등에 재능이 있는 남녀노소를 공개 모집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연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 목포시립합창단과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협연 등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배강원 상임안무자는 “슬프고 애잔한 목포의 이미지를 전환시키는 무대를 만들어 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히면서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색다른 공연이니만큼 즐거운 무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 관람료는 일반 5000원(학생 3000원)으로, 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티켓링크(예매수수료 별도)에서 예매할 수 있고, 당일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한편, 목포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중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할 경우 오는 15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목포시립무용단)에 입장해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2분 이내의 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문학관이 인천 소재 한국근대문학관과 지난 5일 목포문학관에서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시 제공

## 목포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과 업무협약 체결

목포문학관이 인천시 소재 한국근대문학관과 지난 5일 목포문학관에서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문학관은 △상호 발전 및 교류 방안 기획 △상호 문학관 전시 및 행사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에 위치한 한국근대문학관은 인천 문화재단이 인천광역시와 힘을 합해 만든 전국 유일의 공공 종합 문학관으로, 인천 개항장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2013년부터 문학관으로 운영 중이다.

목포문학관과 한국근대문학관은 목포와 인천이 서구의 근대문화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개항도시이자 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100년이 넘는 개항

역사 속에 근대역사문화 자산이 많이 남아있고,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지라는 점에서도 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다.

양 문학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류협력하고 전시를 진행해 근대문학의 역사와 개항도시의 옛 모습, 한 시대를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탁월한 문인들의 삶과 문학 등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한편, 갯바위 문화타운에 위치한 목포문학관은 한국 문학의 거장인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4인 작가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문학관 내 5개 공간을 3D 영상, 스마트 문학체험존, 문학 미디어아트 플랫폼 등 체험형 디지털전시관으로 조성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서부봉사관이 지난 2일 목포시 죽교동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지원했다. 목포시 제공

## 대한적십자사 서부봉사관, 연탄 2천장 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서부봉사관이 지난 2일 죽교동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2000장(저소득층 10가구 각 200장씩)을 지원하며 추운겨울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서부봉사관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꾸준히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

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날은 중·고·대학생 봉사자들 100여명이 모여 연탄을 직접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건영 서부봉사관장은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에 연탄나눔 봉사로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섭 죽교동장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및 봉사자들이 죽교동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후원을 통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죽교동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동절기 취약계층에 연탄구입비 지원... 가구당 8만1천원

목포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에너지 지원인 연탄수급가격 인상 해결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원은 전남·광주지역에서 연탄을 생산하던 화순 소재의 ㈜남선연탄이 지난 3월 경영난과 각종 민원으로 폐업함에 따라 전남 이외의 지역에서 연탄 가격의 인

상 및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목포시는 2023년 기준 151가구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으로 집계됨에 따라 가구당 8만1000원씩 쿠폰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취약계층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된 쿠폰의 신청 및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전주 소재의 (유)전주산업과 경주 소재의 ㈜경동홀딩스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동절기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전남유통연합, 옥암동 저소득 아동세대에 킥라면 기부

### 초대교회 아동부는 과일 나눔

전남유통연합은 지난 4일 다자녀세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아동세대에 전달해 달라며 옥암동에 킥라면 100박스(6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또, 옥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민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담근 나박김치(5kg)를 35통을 전달하며 소외계층의 건강을 지원했다.

목포초대교회(담임목사 홍성범)는 아동부가 모은 현금 후원에 이어 추수감사절을 맞아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단감,

귤, 사과 등의 과일 꾸러미 20박스(100만 원 상당)를 옥암동에 나눔했다.

정미미 옥암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전남유통연합, 옥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포초대교회에 감사드린다. 수확의 계절답게 옥암동에 풍요로운 먹거리를 나눔해 주셔서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하며 주변을 더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